이재명 · 이낙연 비공개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분열없는 단합"

이낙연 〈전 국무총리〉 "도덕성 회복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분열되지 않은 단합'을, 이 전 대표는 '혁신을 통한 단합'을 각각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6시30분에 만나 두 시간 가량 만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과 이 전 대표 최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이 자리에 배석했다.

이번 회동은 미국 1년 유학을 마친 이 전 대표가 지난 6월 귀국한 뒤 처음 가진 자리다. 이 전 대표 귀국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 대표가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느냐. 총리께서 선거에 애 많이 쓰셨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다"고 인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들은 당이 단합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수해로 인해 두 차례 연기 끝 회동

이 대표는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 전 대표가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당초 지난 11일 만날 예정이었으나 수해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회동했다.

/뉴시스

도, 필리핀 불라칸주와 지방교류 의견 교환 지난 28일 필리핀 불라칸주 다니엘 페르난도 주지사 등 대표단이 전북을 방문했다.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지방정부 간 교류 가능 분야를 비롯해 계절근로자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거리로 나선 교사들

"안전한 학교 만들어 달라"

전국 교사 3만여명, 사직로 일대서 추모 집회

3만여명의 교사들이 폭염 속 한자리에 모여 최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를 추모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지난 29일 외쳤다.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사직로 광화문 방면 4개 차로에서 개최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5,000여명이 모인 지난주 첫 집회보다 인원이 대거 늘었다. 주최 측은 3만명으로 추산했으며, 경찰은 2만1,000여명이 모였을 것으로 봤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였지만 교사들은 검은색 계열 상·하의를 입고 '교육환경 조성하라',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모였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며 "단 한 선생님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전국 수많은 교실에 걸쳐 만연해 있던 문제라는 점을 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넘어 교육을 위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 모두를 위해 모였다"며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까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뉴시스

전주시의회 사무국 청사 주변 환경정화

전주시의회 사무국이 이전한 청사 일대의 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날 오전 기존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이전한 노송동 '사회혁신전주' 일대 거리를 청소하는 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플라스틱 커피 용기 등을 따로 분리수거하고,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을 수거하는 등 환경 정비 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앞으로 의회 회기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청사 인근에서 활동 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낙후되는 전북 산업경제 환경 분석 · 진단

도의회 · 전북미래혁신포럼 정책소통 포럼 공동 개최

이차전지 밸류체인 확보 에어모빌리티 혁명 등 통해 전북 산업구조 변혁 의견 모아

전북도의회는 지난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미래혁신포럼과 공동으로 '전라북도의회 정책소통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미래혁신포럼(이사장 이진일)과 공동으로 '전라북도의회 정책소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전북 산업경제 환경을 분석·진단해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채수찬 전 국회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다시 일어나는 전북 경제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북의 산업경제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은 이경재 전북애향본부 기획처장이 좌장을 맡아 윤여봉 前 코트라 리야드법인장, 박승대 전북대 4차산업 특임교수, 이강진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주 국회의원의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제안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산업의 밸류체인 확보, 민관협력 펀드 조성, 에어모빌리티 혁명 등의 전략산업을 통해 전북의 산업구조를 변혁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의회가 마련한 정책소통 포럼을 통해 전북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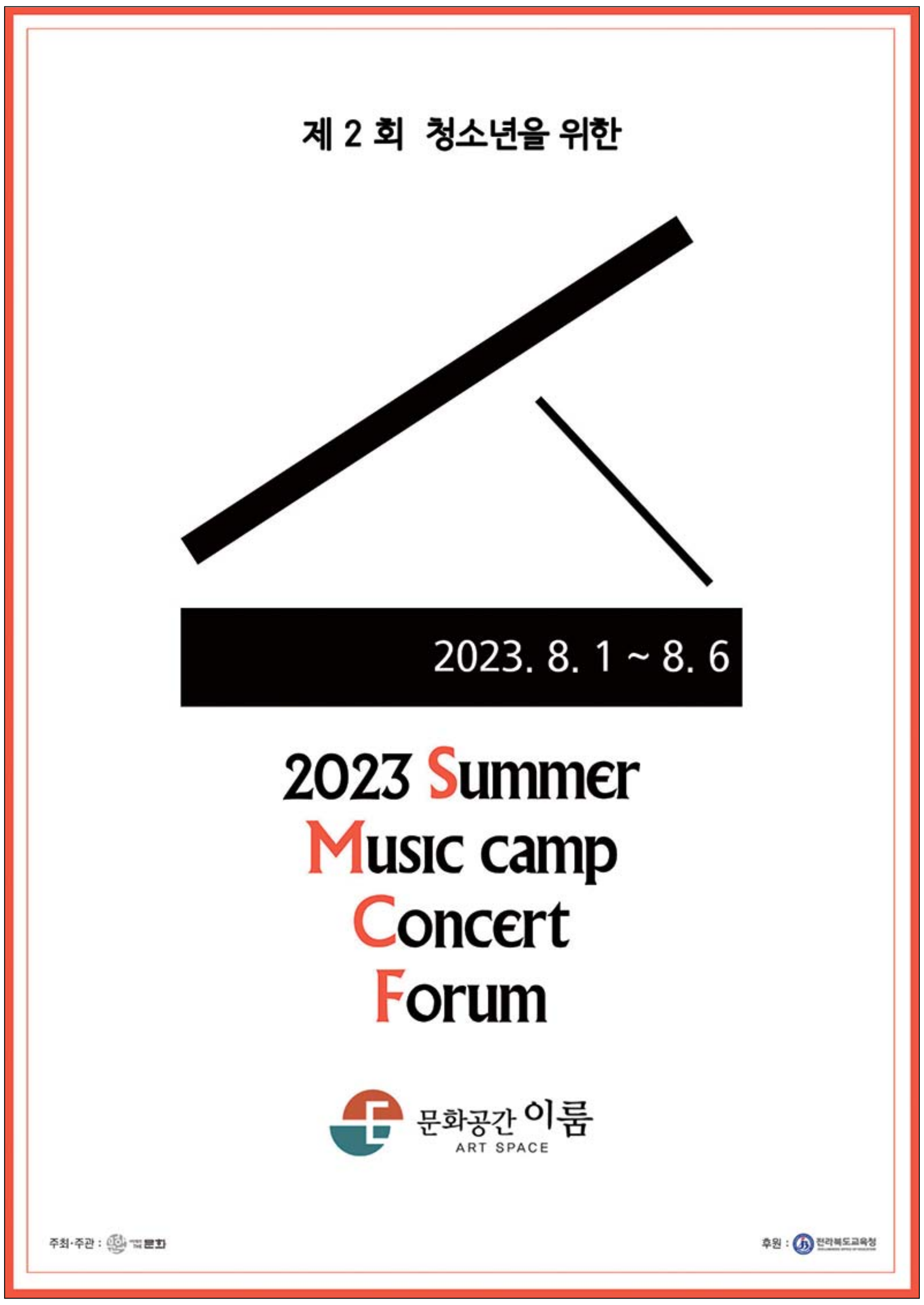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아들학폭 은폐 이동관 OUT'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방송 진흥시켜야 할 막중한 자리다"라면서 "이동관 지명자는 MB 정권시절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수행한 상징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지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단호하게 분쇄해 내는 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